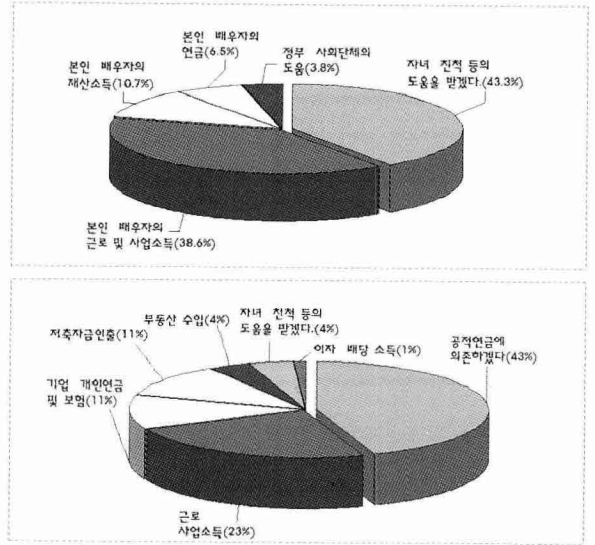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세상 이야기 ■■■

한국 VS 일본의 노후대비



직장인들의 빠듯한 월급으로 풍족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기껏해야 교박 교박 월급에서 떼어가는 국민연금이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노후를 대비하는 최소한의 준비일지 모른다. 높아만 가는 집값에 내집 마련도 만만치 않고, 아이들 사교육비에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실정에 노후대비를 위한 퇴직연금상품 가입은 엄두도 낼 수 없다. 하지만 예전에야 자식들 교육만 잘 시켜 놓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나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현실로 다가 오는 노후, 한 조사 기관에서 한국과 일본의 60세 이상의 정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한국 응답자는 '자녀·친척 등의 도움을 받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0.3%로 가장 많았으며, 본인·배우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38.6%), 본인·배우자의 재산소득(10.7%), 본인·배우자의 연금(6.5%), 정부·사회단체의 도움(3.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일본의 응답자는 '공적연금에 의존하겠다'가 43%

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사업소득(23%), 기업·개인연금 및 보험(11%), 저축자금인출(11%), 부동산 수입(4%), 자녀·친척 등의 도움(4%), 이자·배당 소득(1%)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경우 '자녀 도움을 받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는 냉정하게 생각해 볼 문제이다. 지금의 40~50대를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한다면 이런 응답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지만, 자녀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에서 내심 그럴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으로 '노후에도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대답인데, 이 또한 현실적인 대답이라 보기 어렵다. 팔팔한 청년실업자도 많은 현실에서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선진국이 그런 것처럼 공적·사회적 연금에 의존하겠다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 한국에서의 연금에 의존하겠다는 비율 6.5%와는 너무나 대조를 이룬다. 따라서 일본 직장인들은 연금에 매우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몇 년 전까지는 공적연금(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에 대한 관심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들어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곧 다가올 노후!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